

‘창작 열정’



지역도 거리도 이들을 말리지 못했다

연말이 눈앞이다. 여전히 많은 전시가 개막했다가 폐막했다가를 반복 중이다. 이런 가운데 연말 전후 작가의 이력과 독창적 화회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가 눈에 띈다.

영남에서 대학을 나오고 호남에서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공부한 화가의 전시에 서부터 보통 거리가 아닌데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며 작품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는 작가의 전시가 열리고 있어 주목된다.

고미아 작가와 흥일화 작가가 주인공으로, 이들 전시는 각각한 연말. 무더운 감성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들 전시를 정리. 소개한다.

먼저 고미아 작가는 지역 화단에서 독특한 케이스다. 영남과 호남의 회화를 속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흥 출신이지만 형제들이 대구에 머물고 있어 진학했던 영남대와 동 대학원을 거쳐 다시 광주로 돌아와 조선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과정을 수료했다. 개인전 역

시 경상도와 전라도를 오가며 네차례 열었고, 학부 시절 서양화를 전공했지만, 대학원 박사과정 때 한국화 전공으로 바꿨다.

서양화와 한국화에 대한 이해가 모두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더욱이 육아까지 감당하며 창작에 전념. 분주한 창작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고미아 작가가 다섯번짼 개인전을 지난 5일 개막. 오는 31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이하 광주예당) 갤러리에서 ‘호접몽’(胡

蝶夢)이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다. 광주에 당 전시지원 공모전시의 하나로 마련돼 전시를 열고 있는 작가는 유례한 필선과 부드러운 색체로 인물을 표현해온 가운데 오랜 시간 인체를 탐구해왔다.

이번 개인전에서 전통 공필화 특유의 깊이 있는 선묘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회화 작품 30여점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내면 깊숙한 곳에 잠재된 감정과 자아의 흔적을 담은 진솔한 인물 표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서 은은한 색과 정교한 세밀로 그려진 작가의 인물화는 사색의 공간 속에서 미묘한 감정을 읽을 수 있다.

작품 속 소녀들은 작가 내면의 자화상이다. 어릴 적 이상을 실현해 줄 존재로, 그들의 고요한 표정과 차분한 눈빛에는 성장의 아픔과 삶의 상흔이 스며 있다.

동시에 그 너머로 나아가려는 회복의 의지와 온전함을 향한 마음이 깃들어 있다는 풀이다. 더욱이 섬세하게 인물의 표정까지 놓치지 않은 작가는 소녀의 순수한 감성과 따스한 색체를 더해 자신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한편, 화면 속에서 꽃과 나비의 형상으로 활성화된다.

꽃은 성장과 희망을, 나비는 자유와 변화, 영혼을 각각 상징한다고 밝혔다.

여기다 작가는 그 상장들을 통해 자유로이 날아오르기 위한 깊은 염원을 담아내는 한편, 은은한 색과 정교한 세밀로 그려진 인물들은 사색의 공간 속에서 미묘한 감정을 품어낸다. 작가의 작품은 마치 꿈결처럼

여운이 흐르며, 그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넘어 다시 피어나는 인간의 내면을 마주하게 된다는 반응이다.

오랜 동안 숲에 천착해온 재불화가 흥일화 작가는 프랑스 애콜 데 보자르 Ecole des Beaux-Arts를 졸업하고 국립고등예술조형학 석사를 마친 뒤 2006년부터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며 20년째 국제적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런 흥 작가의 개인전이 지난 10일 개막. 2026년 1월 30일까지 영암 아천미술관 기획초대전으로 진행 중이다.

‘여전히 숲은 말하고 있다’라는 타이틀로 진행 중인 이번 전시에서 생태적 사유와 치유·회복의 메시지를 한층 더 심화시킨 작가는 그동안 펼쳐온 자연이 지닌 생명성과 감각적 증위를 회화·미디어·문화의 여러 장르에 걸쳐 탐구해온 연장선상 위에서 작품을 펼치고 있다.

프랑스 감성과 영암의 자연이 만나는 전시에서는 150점 연작시리즈를 망라해

대회 회화까지 만날 수 있다. 작가는 프랑스와 한국, 룩셈부르크,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 개인전 50여회와 다수 단체전을 지속적으로 열어왔으며, 그의 작품은 암스테르담 반 고흐 파운데이션 등 해외 기관에 소장돼 국제적 예술상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 파리 재불작가 소나무협회 등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지난 3월에는 개인전 ‘가야의 숲’전을 서울 갤러리마리에서 연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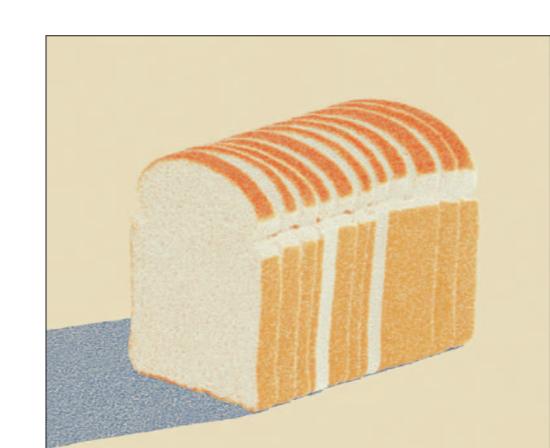
또 EBS ‘서양미술기행’과 ‘세계테마기행’의 방송 진행을 통해 대중과 예술을 잊는 감성적 시선을 전해왔으며, 영화 ‘리얼’의 배경 그림 참여, 제주 아르떼 뮤지엄의 미디어아트 상영, KCC와 아트 컬래버레이션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한 협업 작업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에코 판타지 소설 ‘빛이 숨을 쉴 때’를 출간하며 상상력을 문학의 영역으로 확장했다. 그의 작업은 시각예술과 서사를 넘나들며 “자연이 인간에게 보내는 신호”를 직관적으로 포착하고 그것을 회복의 언어로 번역해내는 데에 그의 예술적 깊이가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설명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이선희 작 ‘커피드로잉’



◀싸비노 작 ‘warm wishes’

마치 화면에서 빵과 커피 내음이 풍기는 듯하다. 연말을 맞아 따뜻한 감성을 전하는 빵과 커피를 주제로 한 전시가 마련된다. 여기다 전시 공간을 작가별 커피 느낌으로 연출해 작품을 봐야 한다는 강박보다는 자연스럽게 빵과 커피 내음 혹은 정서에 이끌려 작품 앞에 서 있게 하지 않을까 싶다.

광주신세계갤러리가 지난 11월 28일 개막. 2026년 1월 13일까지 ‘신세계제과점: 오늘도, 빵과 커피’라는 타이틀로 여는 연말기획전이 그것. 이번 기획전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넛 작가 김재용, 노티브 도넛의 개리터 ‘슈가베어’를 디자인한 이슬로 작가 등 10명의 작품 120여점을 출품됐다.

우리의 일상을 채워온 빵과 커피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이번 전시 기간 신세계갤러리는 특별한 제과점이 돼 전시를 찾은 모든 관람객의 일상에 따스한 고소함 및 크리스마스 케이크와 같은 달콤함을 전한다. 빵과 커피는 단순히 식재료의 기능에 그치지 않는다. 일상 속 숨ぐ 명이 되기도 한다. 커피를 한 잔 하며 빵(케이 포함)으로 입가심하면 허기를 달랠주기도 하고, 확실히 힐링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 무형적 가치들까지 더할 수 있다. 우정과 사랑, 그리고 다양한 만남의 메개 역할까지 수행해낸다. 그래서 일상 속에 서 커피와 빵은 때려야 떨 수 없는 관계가 됐다. 이제

빵과 커피 마음에 담아볼까

광주신세계갤러리

연말기획전 1월 13일까지 열려

김재용·김영준 등 120여점 출품

빵과 커피는 생존 필수품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작가들 또한 빵과 커피를 피해 갈 수는 없다. 그래서 빵과 커피는 많은 작가의 영감의 원천이 됐다. 오래 바라보고 애정을 쏟은 대상을 더욱 잘 표현할 수 있다. 단순한 진리는 작품에 담긴 빵과 커피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든다.

올해 ‘프리즈’와 ‘KIAF’에서도 큰 주목을 받은. 그 자체로 하나의 브랜드가 된 김재용 작가의 회려한 도

넛 작품들과 인기 도넛 카페 ‘노티드도넛’의 상징 ‘슈가베이’를 제작한 이슬로 작가의 몽몽몽한 회화, 손그림의 감성을 높긴 김영준 작가의 애니메이션, 빵을 담은 그림마저 먹음직스럽게 구워낸 요일 공방의 도자기, 나만의 커피를 찾아 전국의 카페를 답사하며 기록한 이선희 작가의 커피 드로잉까지 각기 다른 매체를 이용해 제작한 작품들은 다양한 빵과 커피만이 나 따로운 매력을 느껴볼 수 있다.

또 선명한 색감의 박도로 작가, 부드러운 질감의 헤진 작가, 물감의 질감이 살아있는 김예지 작가, 아기자기한 매력의 루나양 작가, 디지털 일러스트의 매력을 선보이는 싸비노 작가가 각기 다른 레시피로 완성한 회화까지 신세계제과점이 정성스레 준비한 매뉴를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다. 전시 기간 중 김재용 작가의 포토존이 설치되고 광주 출신 일러스트레이터 싸비노 작가가 지역 카페·베이커리와 협력해 제작한 특별 일러스트가 공개되는 등 연계프로그램이 진행. 관람객분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안겨준다.

백지홍 큐레이터는 이번 전시에 대해 “관람객분들이 이 쟁반 기득 빵을 담는 마음으로 전시를 감상하면 좋겠다. 취향에 맞는 작품을 찾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풍성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명품 빌라더 디셈버 DK ‘단독 콘서트’ 열린다

내년 1월 10일 조선대 해오름관

그룹 디셈버 (December)의 DK가 내년 1월 10일 오후 6시 광주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단독 콘서트를 갖는다.

‘TIMELESS’라는 타이틀로 열릴 이번 무대는 전국 투어로 마련된다. 광주는 DK가 꾸준히 사랑받아온 도시인 만큼, 팬들의 기대감이 어느 지역보다 높다.

김은 감성과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명품 빌라더’로 불리는 DK는 이번 공연에서 넓은 음역대와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대표곡부터 새롭게 재해석한 편곡 무대까지 들려줄 예정이다

무대에서는 ‘이미 아름다운 그대’를 비롯해 ‘부탁’, ‘안녕을 바라는 마음’ 등 히트곡은 물론, 최근 재조명되고 있는 화제의 곡 ‘기억해’를 감고 있다.

DK는 “광주 팬들과의 만남은 언제나 특별하다”며 “한 곡 한 곡 온 마음을 담아 노래하겠다”고 전했다.

공연 관계자는 “무대를 직접 본 팬들은 DK의 라이브가 음원보다 더 감동적이라며 입을 모운다. 이번 광주 공연 역시 김은 음辱을 전하는 명품 콘서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하면 된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문화통’ 겨울호 발간…K푸드 이야기 등 다채

광주문화발전소(이사장 지형원)가 펴내는 ‘문화통’ 겨울호가 나왔다. 통권 57호로 발간된 이번 호에서는 에디터레이터 ‘고봉방’을 시작으로 전라도 문화수수께기 ‘강진 의마총’에서 아직도 제사를 지내는 까닭에 대해 풀어냈으며, 장기시리즈 ‘전남의 마을 1박 2일’에서는 훈민정음 창제 최향과 임란의 충절 정백리 최홍원 등을 배출한 산성최씨를 집중 취재했다.

차령 50년의 을드카 폭스바겐 비틀을 몰고 출퇴근하는 ‘멋쟁이’ 광주치과 이상 열 원장의 멋진 삶을 들여다봤으며 음식으로 읽는 문화에서는 ‘불고기’의 유래를, 전라도 밥상에서는 민어와 정계를 넣

어장을 담구는 어육간장을 추적, 취재했다.

이밖에도 꼬나무 편에서는 오페라 ‘무등등등’에서 구두닦이역을 했던 살례시오조 5

학년 최민유 양을 만났으며 연예가 핫 이슈로 K드라마를 통해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치킨과 떡볶이, 김밥·비빔밥, 갈비, 칼국수, 컵라면 등의 K푸드 이야기, 조용한 칼럼 ‘강진 철향옹기의 비밀’ 등 읽을 거리가 풍부하다. 정재경 기자